

#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202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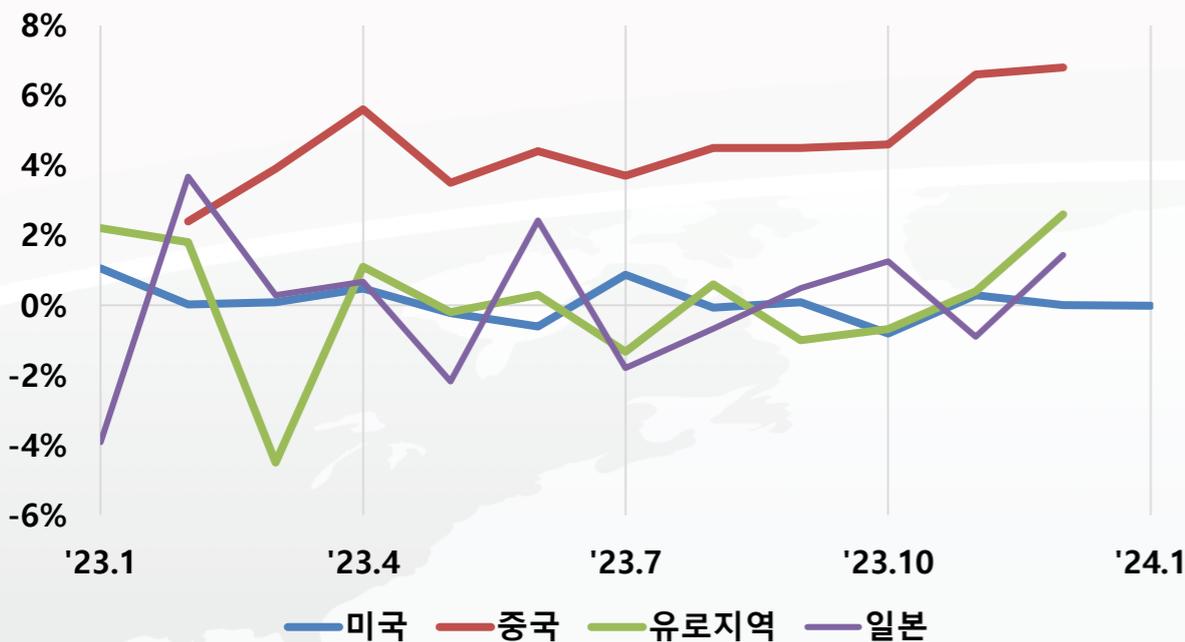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

# 세계 경제동향

## ■ 주요국 경제동향 : 미국 경기 견조세 지속, 중국 경기 소폭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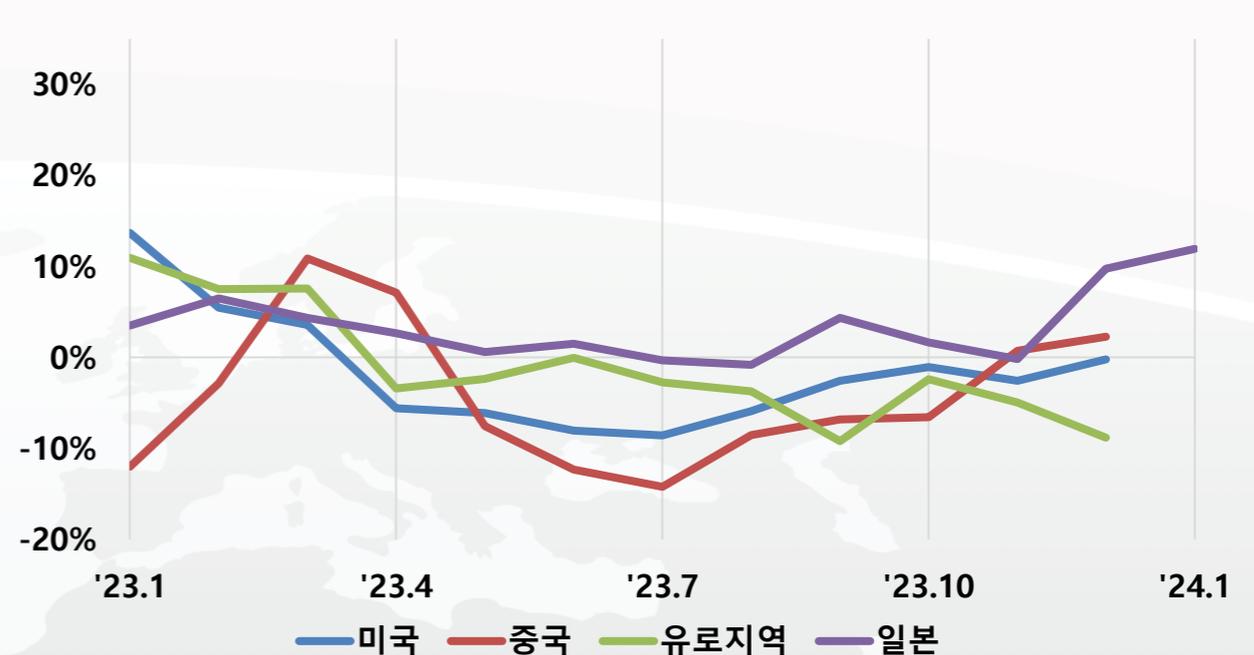
- **(미국) 생산 및 소비 위축 불구 고용 시장 견조세 지속, 물가 상승률 예상(+2.9%) 상회**
  - 1월 산업생산(△0.1%) 및 소매판매(△0.8%) 전월 대비 감소
  - 1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가폭(+35.3만명) 전월(+33.3만명) 대비 확대, 실업률(3.7%)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
  -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 대비)은 +3.1%로 전월(+3.4%) 대비 하락, 근원물가 상승률(+3.9%)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
- **(중국) '23년 연간 성장 목표 달성, 부동산 투자 부진 및 소비자 물가 하락 등 불확실성 지속**
  - '23년 연간 GDP 성장률은 신에너지차와 배터리 등의 생산과 투자 확대로 +5.2%를 기록하며 연간 목표(+5%) 달성
  - '23년 부동산 투자는 전년 대비 9.6% 감소했으며, 소비자 물가는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하락폭 확대
- **(유로존)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 지연 양상**
  - '23년 12월 산업생산(전월 대비 +2.4%) 2개월 연속 증가, 소매판매 전월 대비 증가율 △1.1%로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다시 반전
  -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8%로 전월(+2.9%)과 비슷한 수준 유지, 유로존 1월 산업 PMI(47.9)는 전월(47.6) 대비 소폭 회복
- **(일본) '23년 12월 생산 회복, 소비 감소, 수출 증가 등 경기 지표 혼조세**
  - '23년 12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4% 증가, 12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2.6% 감소, 수출(엔화기준) 전년동월 대비 11.9% 증가

### 전산업생산지수



주 : 전월 대비, 계절조정 기준. 중국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 Bloomberg

### 수출 추이



주 : 전년동월 대비, 원계열 기준. 중국(USD) 제외 각국 통화 기준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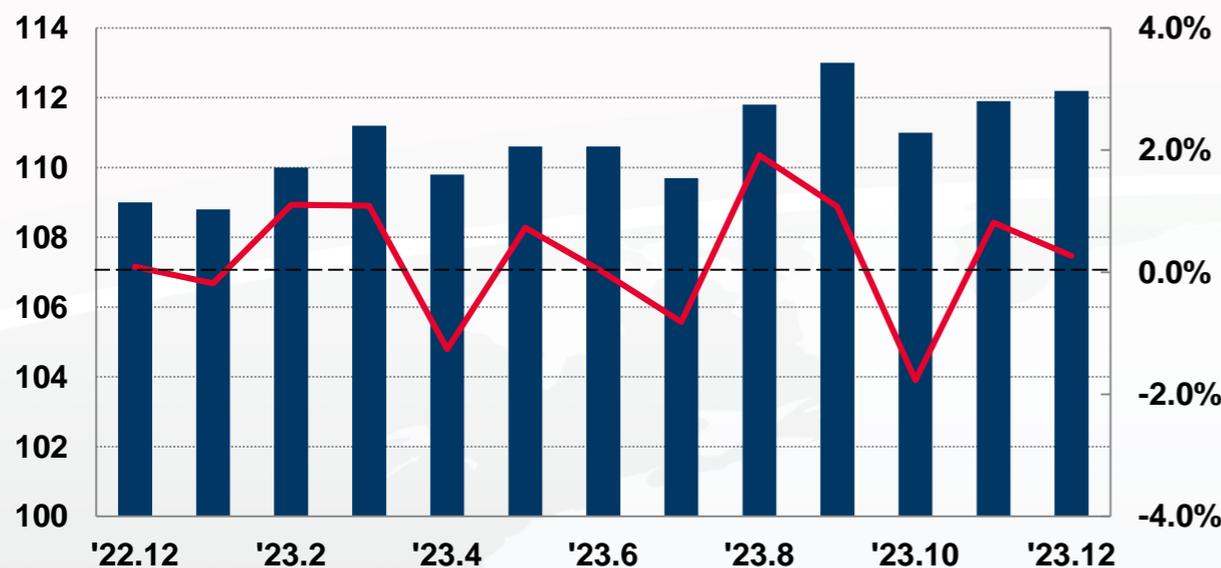
### ■ 산업 활동 :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증가, 경기 선행종합지수는 4개월 연속 전월대비 상승

- (생산) 12월 전산업생산은 건설업은 줄었으나 광공업·서비스업 등에서 모두 늘어 전월 대비 0.3% 증가
  - (광공업 : +0.6%) : 통신·방송장비(△34.7%)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8.5%), 자동차(+4.7%) 등에서 증가
  - (서비스업 : △0.1%) : 협회·수리·개인(△5.8%) 등에서 줄었으나, 운수·창고(+2.5%), 금융·보험(+4.9%) 등에서 증가
- (경기) 12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100p)는 장단기금리차, 경제심리지수 등은 감소했으나, 재고순환지표, 건설수주액 등이 증가해 전월대비 0.1p 상승(기준치 100)

### ■ 고용 : 30대, 20대에서 늘어 고용률 상승, 취업자수도 38만명 증가

- (고용률) 1월 15~64세 고용률(68.7%)은 30대, 20대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 (취업자) 1월 취업자수(2,774만3천명)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38만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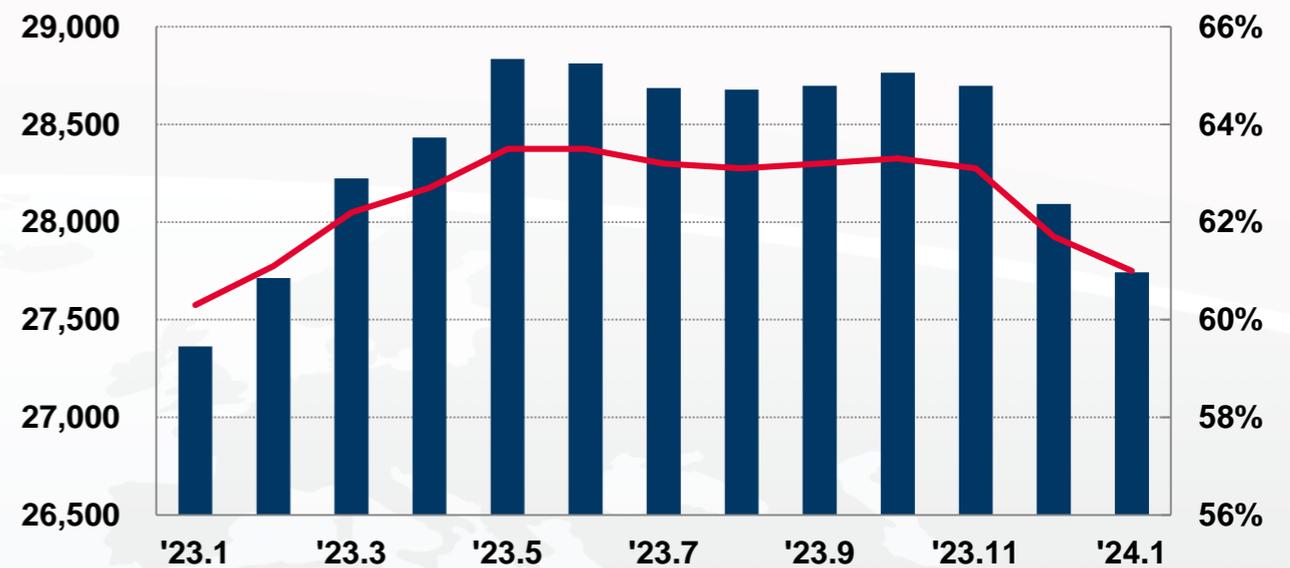
#### 전산업생산지수 (계절 조정)



■ 전산업생산지수(2020년=100)(좌)    — 증감률(우)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 취업자수 · 고용률



■ 취업자(천명) (좌)    — 고용률(우)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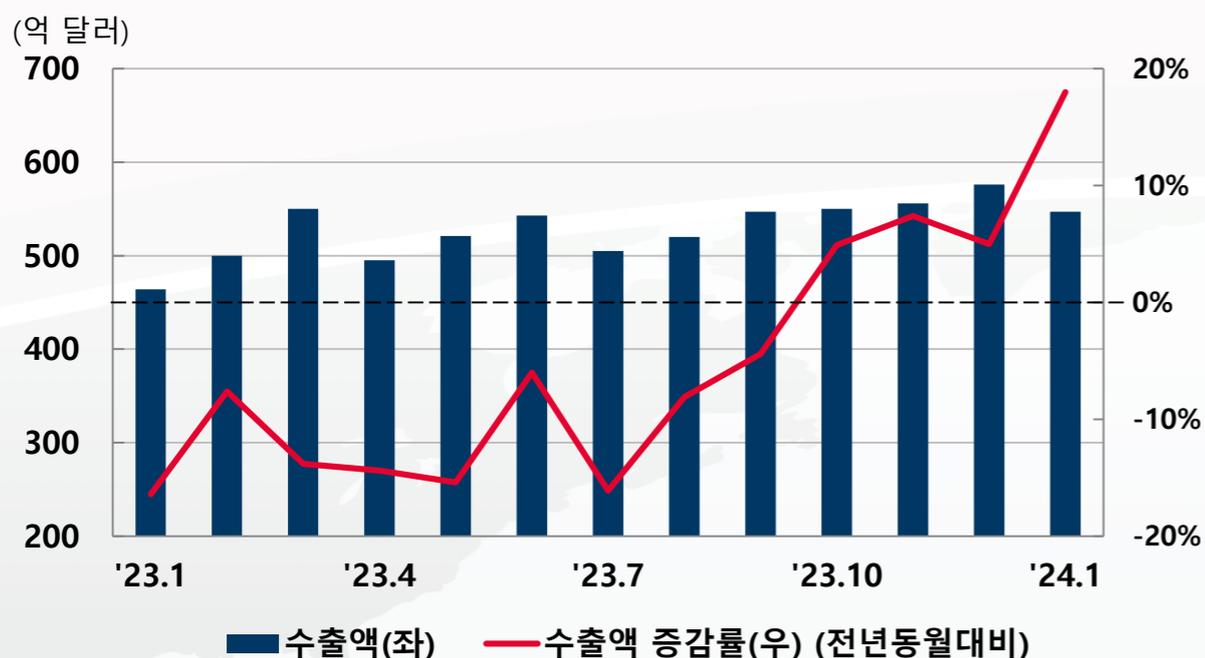
### ■ 수출입 :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호조로 4개월 연속 수출 증가, 대중국 수출도 증가세 전환

- (수출) 1월 수출은 547억 달러(전년동월 대비 +18.0%)로 20개월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
  - 반도체(+56.2%)는 '17년 12월 이후 최고 증가율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증가, 자동차(+24.8%), 선박(+76.2%) 등도 호조세 지속
  - 중국(+16.1%)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20개월만에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환, 미국(+26.9%)도 역대 1월 중 최대 실적 기록
- (수입) 1월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에너지 수입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 대비 7.8% 감소한 544억 달러
- (무역수지) 전년동월 대비 130억 달러 개선된 3억 달러 흑자, 8개월 연속 흑자 기록

### ■ 교역 조건 : 원/달러 환율,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수출입물가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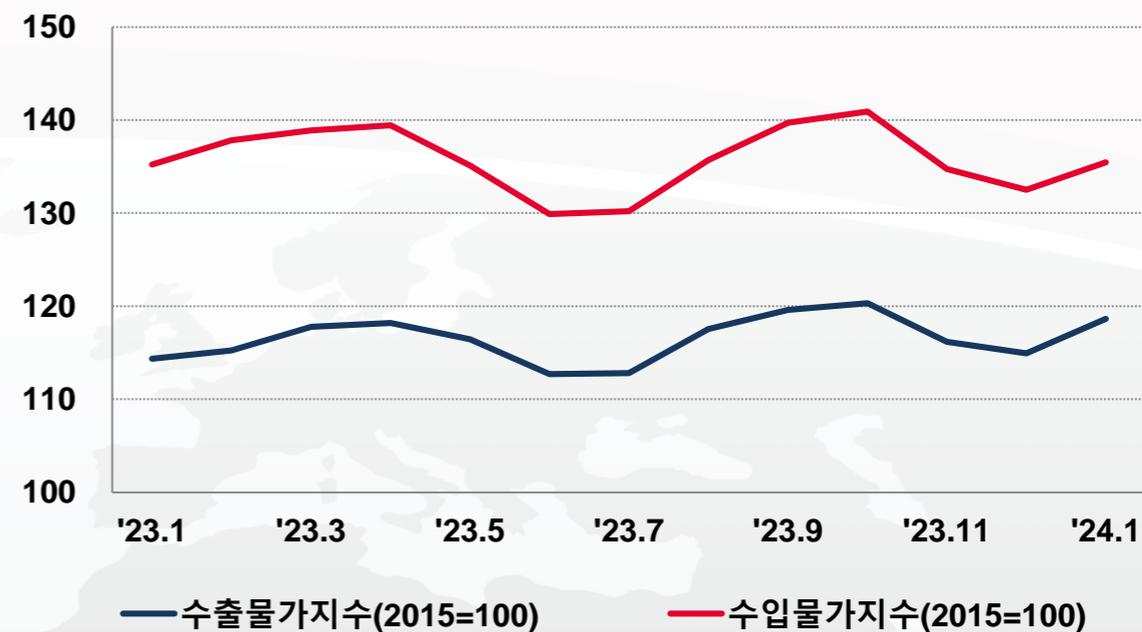
- (수출물가) 1월 수출물가(원화기준)는 원/달러 환율, 반도체 등이 오르며 전월 대비 3.2%,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
- (수입물가) 1월 수입물가(원화기준)는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2%, 전년동월 대비 0.2% 상승

#### 수출 추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통관기준)

#### 수출입 물가



자료 : 한국은행

#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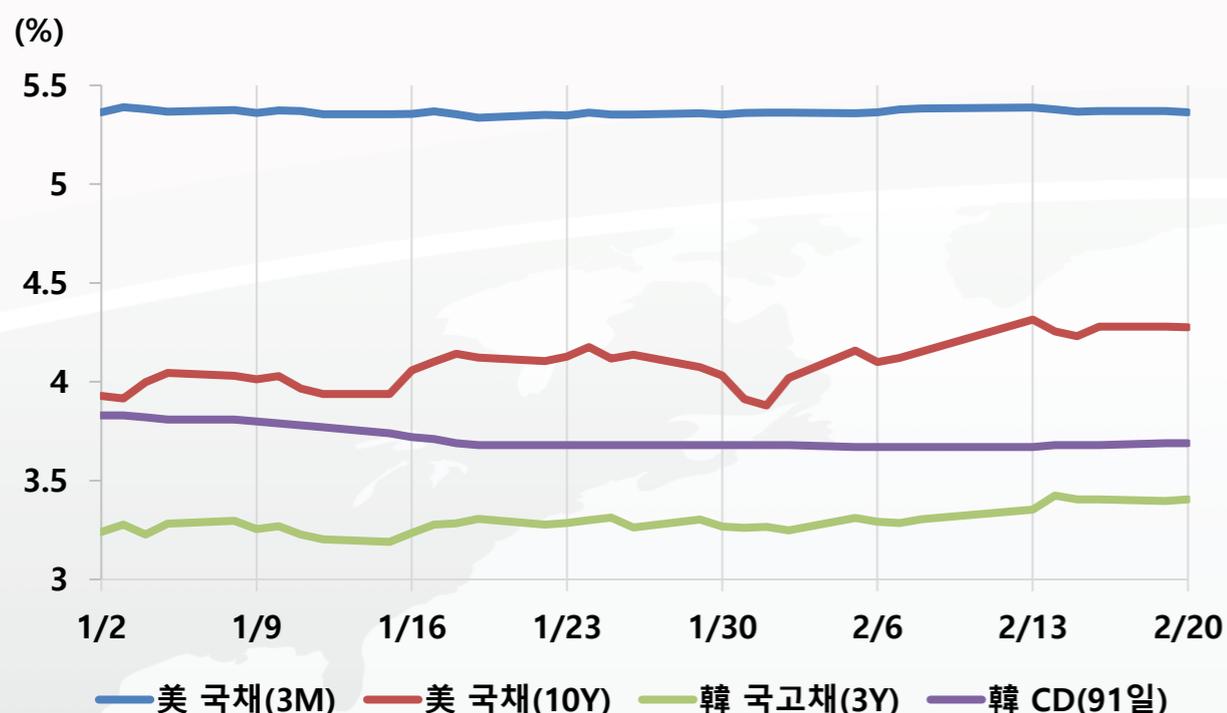
## ■ 금리 : 미국 고용 안정세, 소비자 물가 하락폭 둔화 등으로 금리 상승

- (미국) 미국채 금리(10년물)는 1월 고용지표 개선세 지속,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상 상회, 미연준의 매파적 입장 표명 등으로 미연준의 금리 인하가 5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4.3%대로 상승
- (한국) 국고채 금리(3년물)는 국내 경기 상황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나 미금리 상승세, 한은의 금리인하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으로 1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3.4%대 기록

## ■ 환율 : 미국채 수익률 상승, 주요국의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미달러화 강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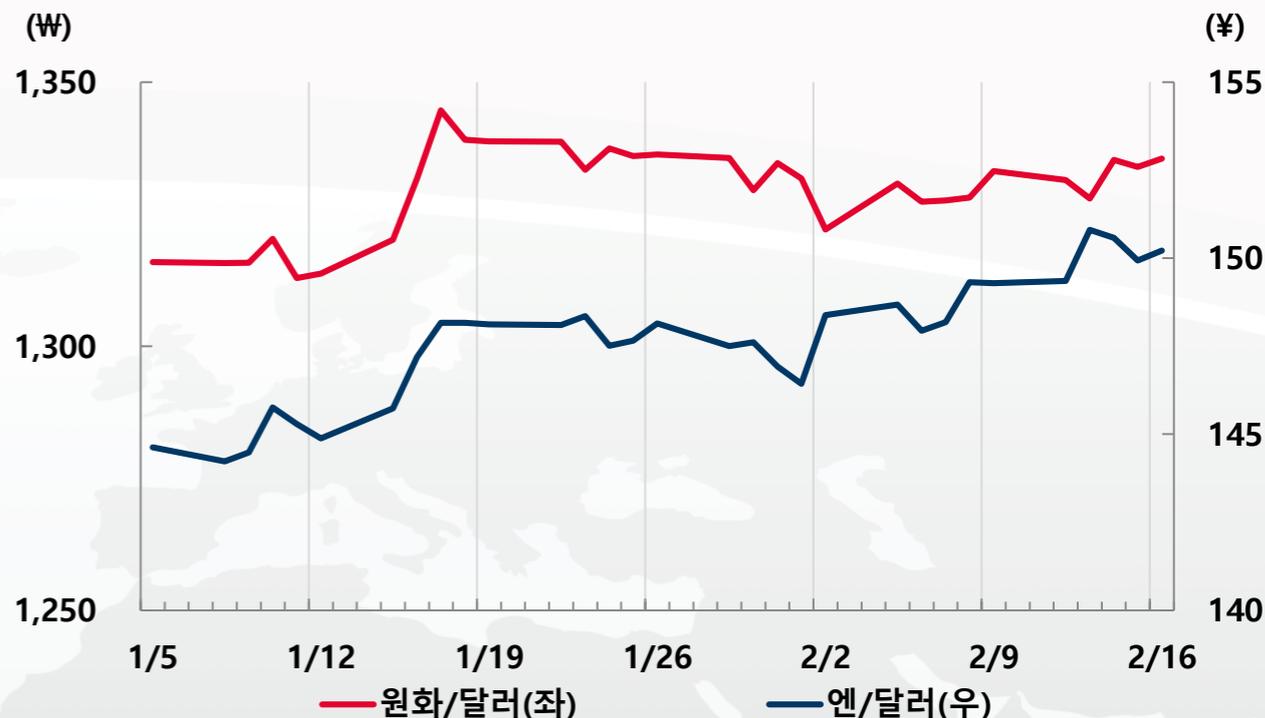
-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은 미 경기지표 호조에 따른 미달러화 강세,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1,344원/달러(1/17) 수준으로 상승한 이후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1,335원/달러 수준에서 등락
- (엔/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도 미달러화 강세와 일본은행의 저금리 정책 유지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150엔/달러 돌파, 원/엔 환율은 엔화 약세가 강화되며 890원/100엔 수준으로 하락

韓·美 채권 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및 한국은행

달러 환율(對원화, 對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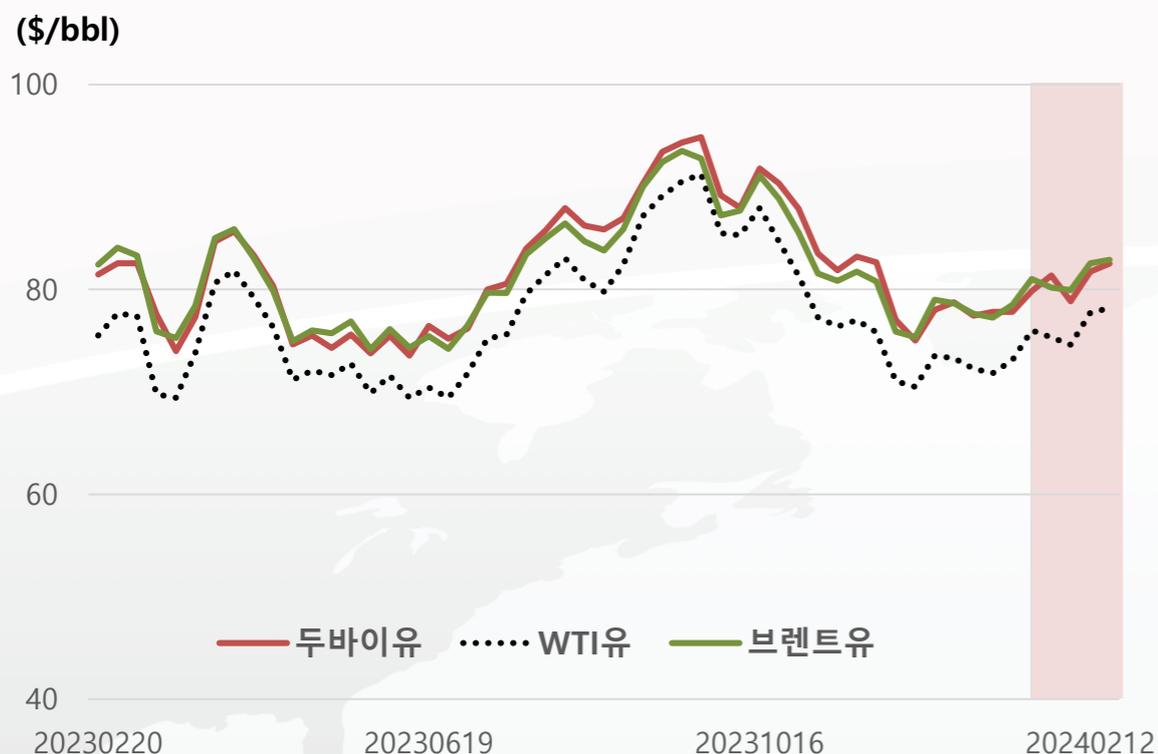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 ■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상승, 천연가스 가격은 mmBtu당 1달러 중반대로 급락

- (원유) 2월초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위축, 원유재고 증가 등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후반대로 하락했으나 이후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 지속에 따른 유가 상승세를 보이며 2월말 배럴당 80달러 초반대 기록(\$81.44/bbl, 2/21)
  - 후티 반군의 드론·미사일 공격 등 홍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에 따른 원유 공급차질 불안감 확대와 함께 최근 미국 정제설비의 유지보수 기간 종료 이후 재가동에 따른 원유수요 증가 기대감 등이 유가상승 견인
- (천연가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1월 중순 이후 평년대비 높은 동절기 기온으로 난방용 가스 수요가 둔화되는 한편 생산량 증가로 높은 재고수준을 기록하며 2월 들어 mmBtu당 1달러대로 급락(\$1.58/mmBtu, 2/15)
  - 천연가스 가격 약세 지속으로 미국의 주요 천연가스 생산업체들이 생산량 축소 의향을 밝히며 2월말 천연가스 가격은 mmBtu당 1달러 후반대로 소폭 반등(\$1.77/mmBtu, 2/21)

### 국제유가 추이



### 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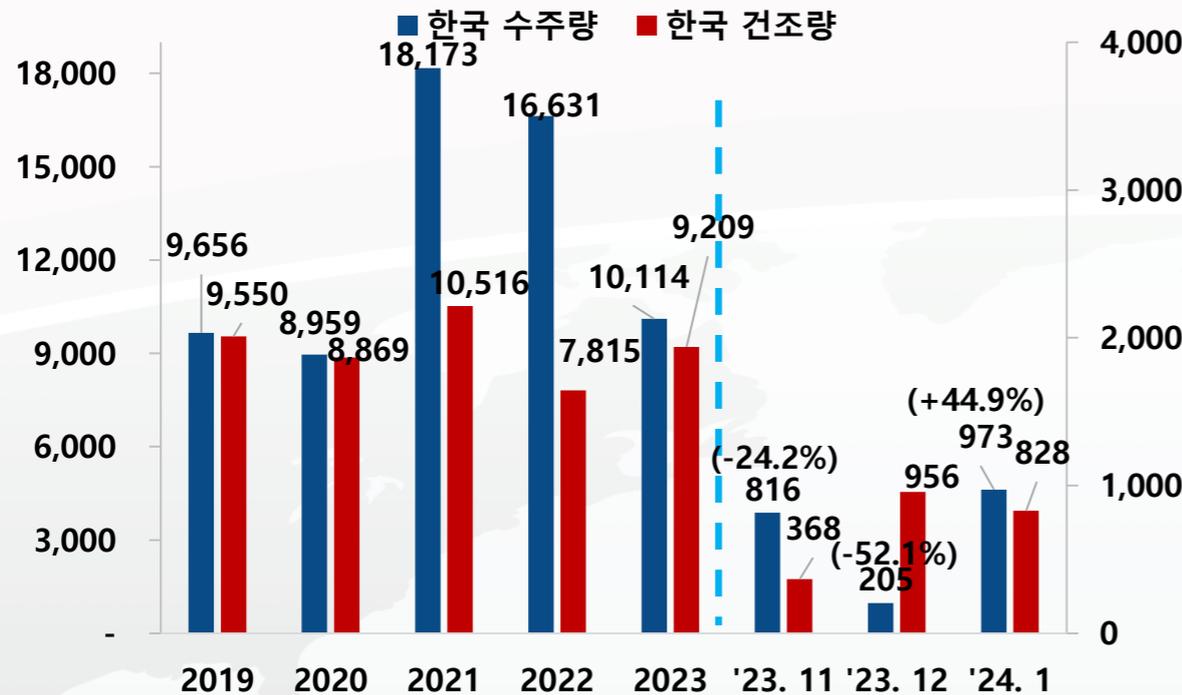
자료 : Koreapds(유가는 주간 가격, 천연가스 가격은 NYMEX 익월물 일일가격)

## ■ 1월 세계 발주량은 다소 부진한 수준이나 국내 수주량은 점유율을 높이며 비교적 양호

- 1월, 다양한 선종이 발주되었으며 특히, 암모니아운반선 등 신선종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발주량은 감소
  - 1월 세계 발주량은 257만CGT(전년동월 대비  $\Delta$ 26.1%),
  - 1월 한국 수주량은 97만CGT(전년동월 대비 +45.0%)
  - 1월 한국 수주액은 30.5억 달러(전년동월 대비 +59.3%)
  - 1월 신조선 시장은 LNG선 등 최근까지 활발한 발주가 있었던 선종 수요가 감소하고 다소 부진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한국은 대형 (LPG겸용)암모니아운반선 등 신선종을 대거 수주하며 점유율을 높이며 비교적 양호한 수주실적을 기록
- 1월 선박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크게 증가하며 비교적 양호한 수준 달성
  - 1월 수출액은 25.1억 달러(전년동월 대비 +76.0%)
  - 지난해 10월 이후 LNG선 등 고부가 선박 인도 등으로 비교적 양호한 실적 지속

### 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천C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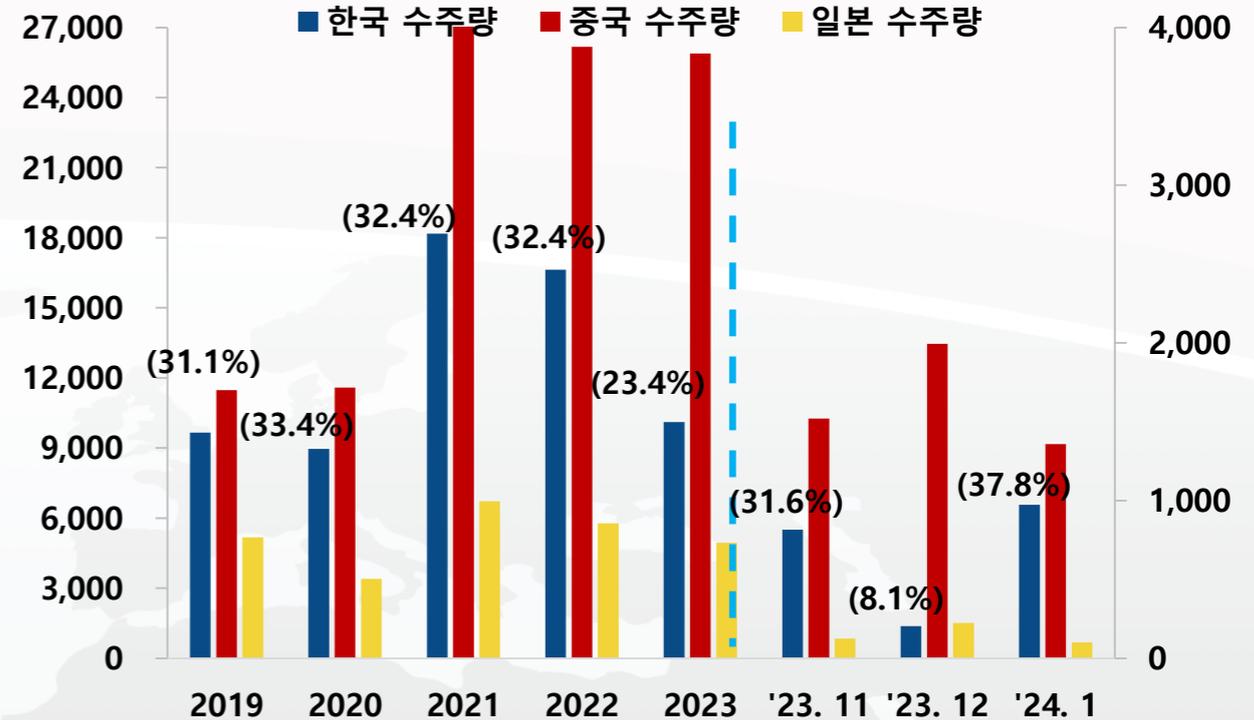
※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



주 :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  
자료 : Clarkson

### 한·중·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천CGT)

※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



주 : 괄호 안은 당해연도 및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  
자료 : Clarkson

## ■ 1월, 주요 선종 시장은 양대 운하의 통항 차질, 러-우 전쟁 영향 지속 등으로 대체로 강세 지속

- **1월 드라이벌크선 운임은 춘절을 앞둔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운하 통항 차질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강세**
  - 1월 벌크선 운임은 전통적인 춘절 비수기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양대 운하 문제로 인한 항해거리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강세
  - 1월 BDI 평균은 1,617(전년동기 대비 +77.9%)를 기록하였고 2월 3주차 BDI는 1,586(전년동기 대비 +184.4%)
- **1월 컨테이너선 시황은 홍해 사태 영향으로 강세 지속**
  - 1월 중에도 홍해 사태가 지속되어 운임이 강세를 보였으나 신조 선박도 대량 인도되고 있어 1월 하순 이후 운임이 다소 하락
  - 1월 평균 SCFI는 2,130(전년동기 대비 +104.7%) 기록, 2월 2주차 SCFI는 2,166(전년동기 대비 +117.7%)
- **1월 탱커 시황은 러-우 전쟁 영향으로 강세 지속**
  - 러-우 전쟁 이후 형성된 교역 노선의 장거리화가 유지되며 탱커 용선료는 강세 유지
  - 1월 평균 1년 정기용선료 310K VLCC는 1일당 45,250달러(전월 대비 0.0%), 50K MR탱커는 31,313달러(전월 대비 +2.8%)

**BDI 및 SCFI 추이** (지수)



자료 : Clarkson, Baltic Exchange, 상하이항운교역소

**탱커 1년 정기용선료 추이** (\$/day)



자료 : Clarkson

# 석유제품·석유화학

## ■ 1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각각 +11.8%, +4.0% 기록

- (석유제품) '24년 1월 수출액은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유사의 높은 가동률과 견조한 산업용 제품(나프타, LPG 등)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11.8% 증가한 47.2억 달러 기록

\* 국제유가(두바이유, \$/bbl): ('23.1) 80.42 → ('24.1) 78.8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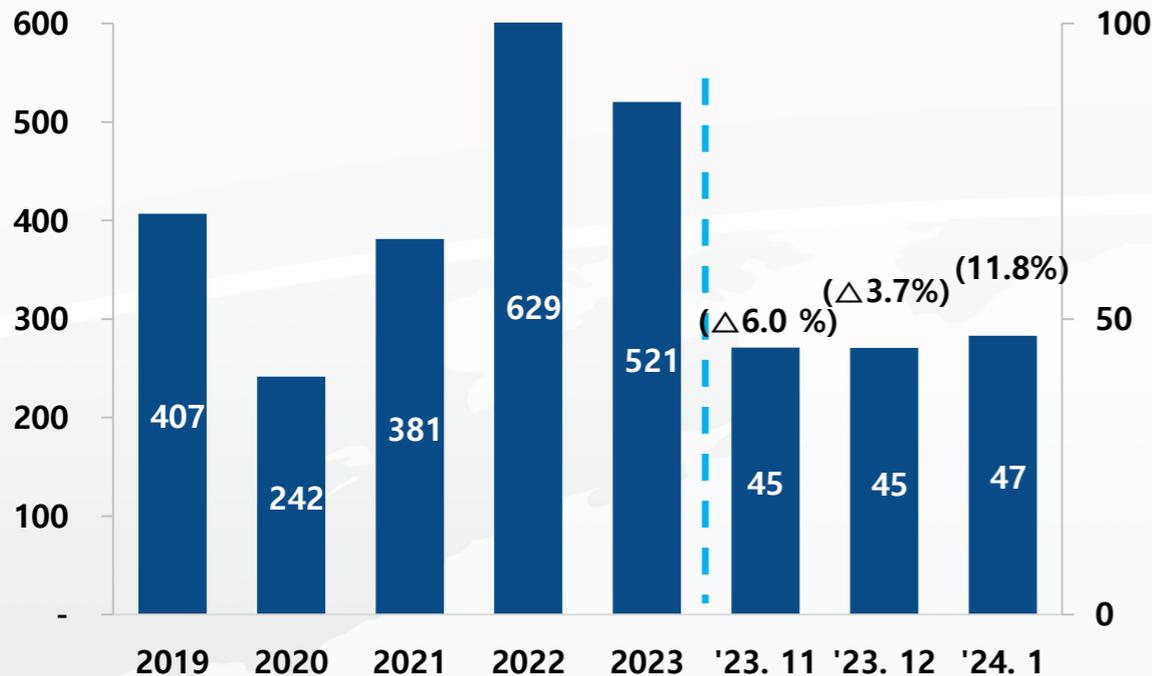
\* 석유제품 수출단가(\$/톤): ('23.1) 840 → ('24.1<sup>e</sup>) 773(△7.9%)

- (석유화학) '24년 1월 수출액은 유가하락 및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제품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규설비 및 유희설비 재가동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와 인도 등 수요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4.0% 증가한 40.0억 달러 기록

\* 석유화학 제품 수출단가(\$/톤): ('23.1) 1,245 → ('24.1<sup>e</sup>) 1,213(△2.6%)

### 석유제품 수출액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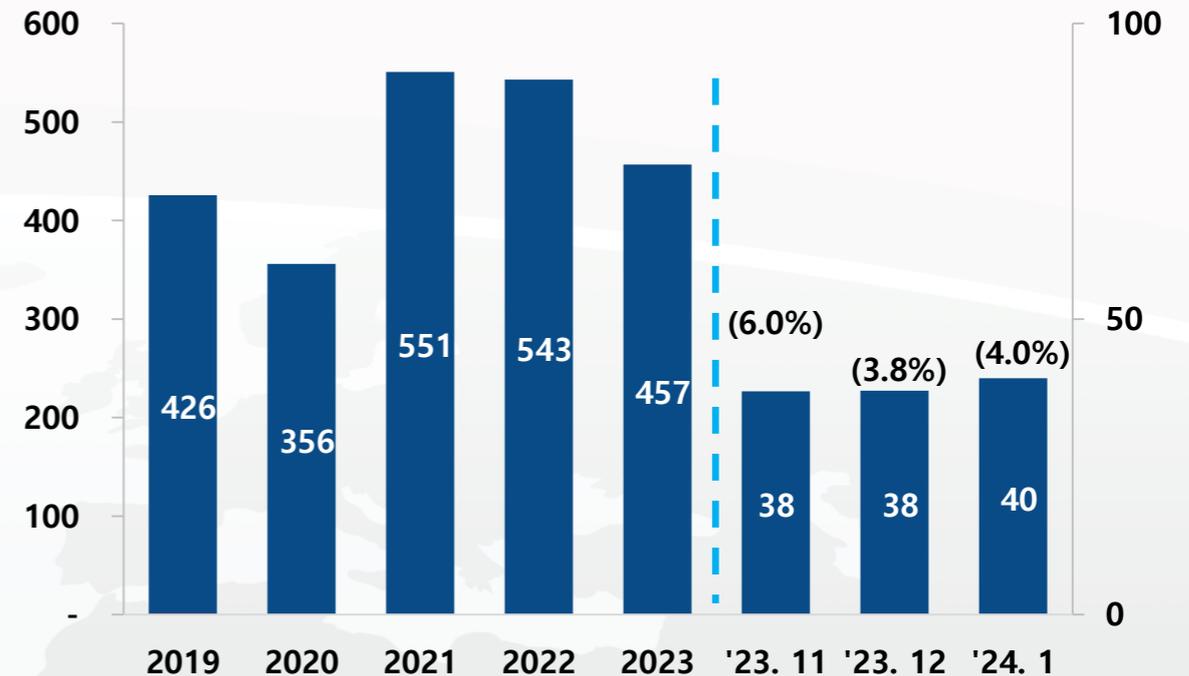
※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



주 :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 연간자료는 KITA, 월간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화학 수출액 (억 달러)

※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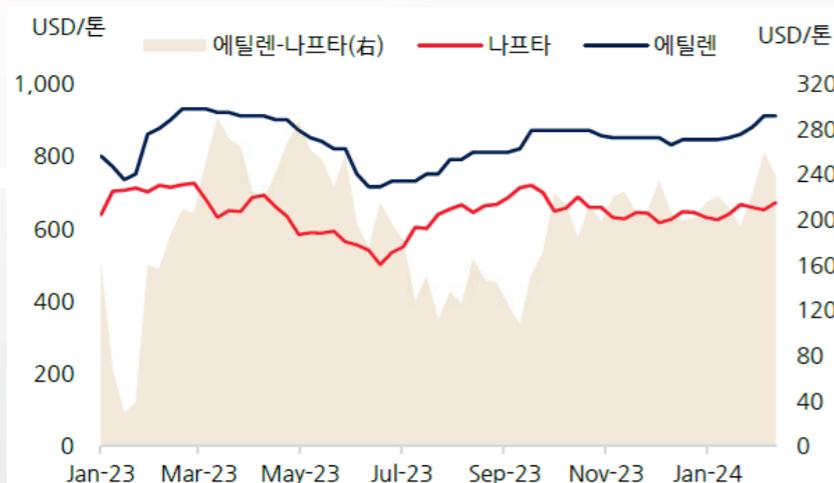
주 :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 연간자료는 KITA, 월간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화학 기초유분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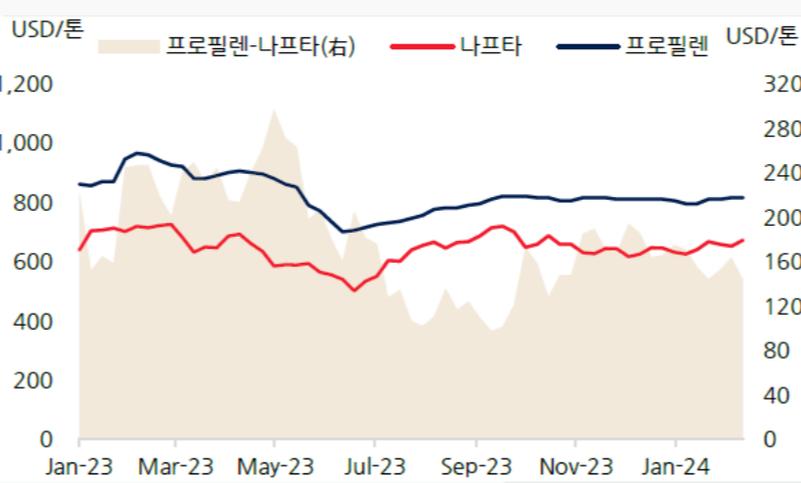
## ■ 에틸렌, 부타디엔 가격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프로필렌 가격은 보합세 지속

- **(에틸렌) 유가 상승과 재고 물량 확보 수요 지속으로 가격 상승**(\$910/톤, 2/21)
  - 강한 유가반등으로 에틸렌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중국 춘절을 앞둔 재고 확보 수요 지속과 한국 GS칼텍스의 에틸렌 크래커(연간 75만 톤 규모) 유지보수에 따른 가동중단 등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 **(프로필렌) 예상보다 약한 재고 물량 확보 수요로 보합세**(\$815/톤, 2/21)
  - 프로필렌 생산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공급 부족 우려로 가격 상승 압력을 받았으나 예상보다 재고 확보 수요가 강하지 않아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며 보합세
- **(부타디엔) 중국 춘절 연휴를 앞두고 공급 부족 우려로 가격 상승**(\$1,180/톤, 2/21)
  - 아시아 역내 크래커 설비 가동률이 낮게 유지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부타디엔 현물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한편, 홍해 및 파나마 운하 수출경로가 제한되며 아시아 지역의 부타디엔 가격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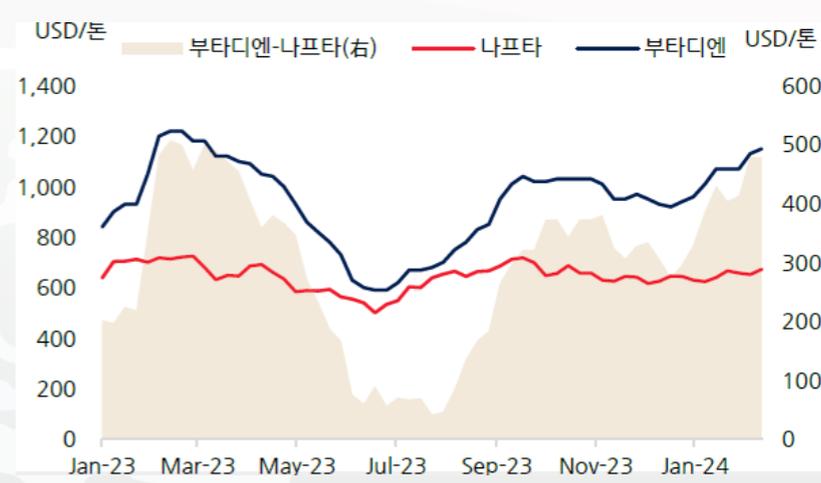
### 에틸렌 가격 추이



### 프로필렌 가격 추이



### 부타디엔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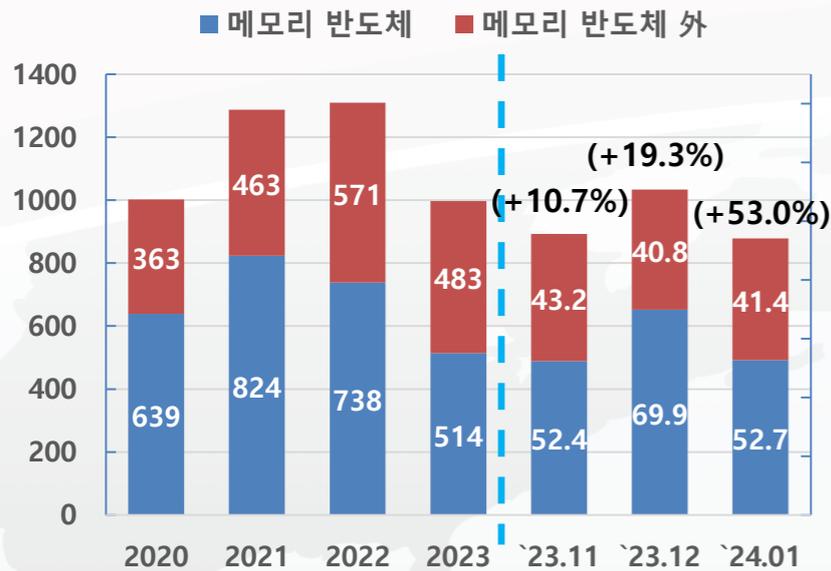
자료 : Koreapds(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 가격은 한국 FOB, 나프타 가격은 일본 C&F)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통신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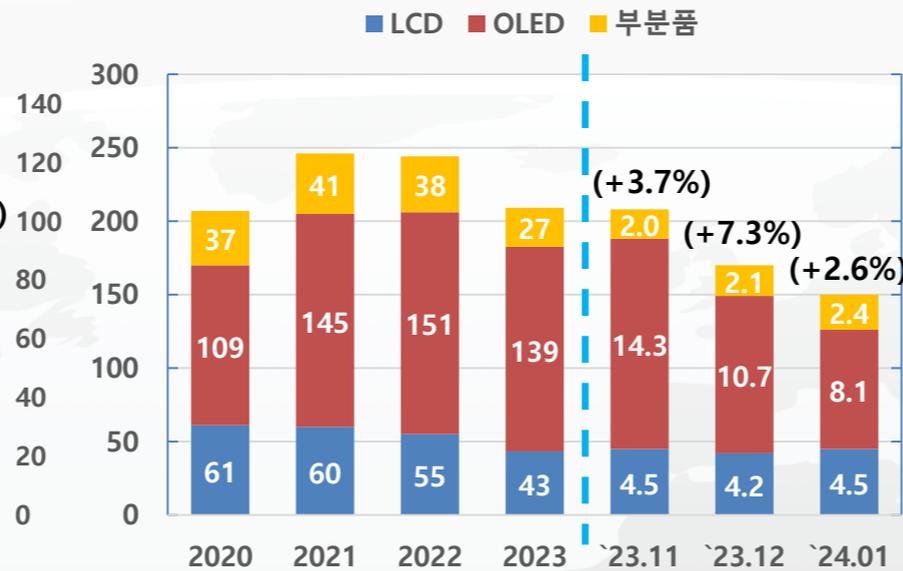
## ■ 1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53.0% 증가, 디스플레이 2.6% 증가, 통신기기 15.6% 감소

- 1월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수출액이 대폭 증가(+90.3%)하여 전년동월 대비 53.0% 증가한 94.1억 달러 기록
  - (메모리) 1월 메모리 수출은 D램 및 낸드플래시 가격 반등과 글로벌 수요회복으로 전년동월 대비 90.5% 증가한 52.7억 달러 기록
  - (메모리外) 1월 메모리外 반도체 수출은 AI 인프라 투자확대에 따른 시스템 반도체 수출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22.5% 증가한 41.4억 달러 기록
- 1월 디스플레이 수출은 LCD 수출이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며 전년동월 대비 2.6% 증가한 15.0억 달러 기록
  - (LCD) 1월 LCD 수출은 고부가가치 TV용 대형 패널 등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동월 대비 대폭 증가(+51.9%)한 4.5억 달러 기록
  - (OLED) 1월 OLED 수출은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인 모바일 수요 위축으로 전년동월 대비 15.4% 감소한 8.1억 달러 기록
- 1월 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분품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23.3%)하여 전년동월 대비 15.6% 감소한 13.0억 달러 기록
  - (휴대폰) 1월 휴대폰 수출은 전년동월 수출 호조의 기저효과 및 對중국 부분품 수출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20.1% 감소한 11.0억 달러 기록
    - \*1월 완제품 수출은 2.9억달러, 부분품 수출은 8.2억 달러로 각각 전월 대비 1.3억, 0.4억 달러 증가하였으나 수출 호조였던 '23년 1월 대비는 감소
  - (통신장비) 1월은 통신장비 수출은 베트남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가 회복되며 전년동월 대비 27.6% 증가한 2.0억 달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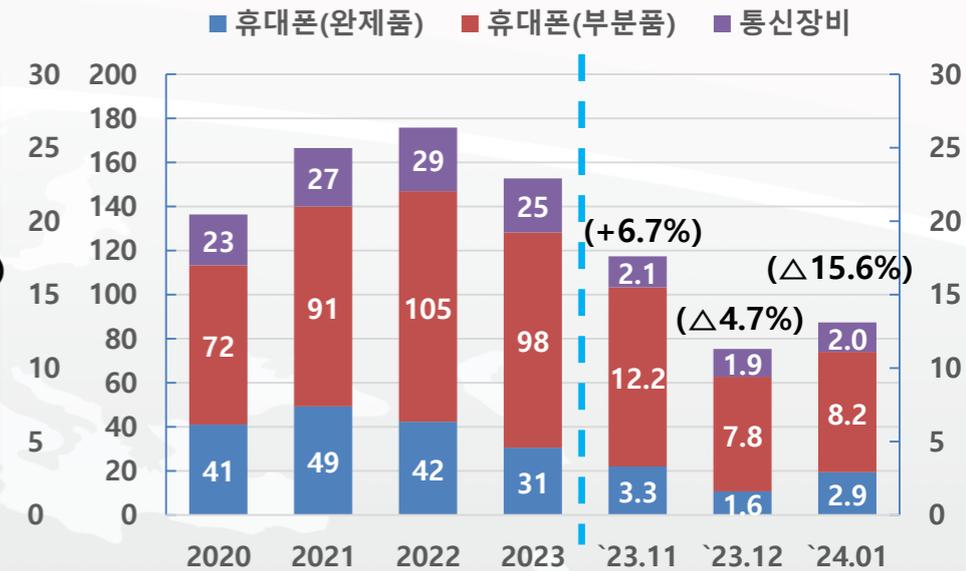
### 반도체 수출액 (억 달러)



### 디스플레이 수출액 (억 달러)



### 통신기기 수출액 (억 달러)



주 :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 공급망 동향

## 1월 주요 변동 핵심광물은 니켈·망간·흑연·리튬, GVC 주요 키워드는 공급망, 기술, 가격 등

- (핵심광물 수입량 변화) 1월 니켈·망간은 수입량 대폭 증가, 흑연·리튬 등은 수입량이 큰 폭으로 감소**
  - (니켈) 핀란드부터로의 수입액이 전년동월 대비 대폭 증가(+2,177.6%)하며 전년동월 대비 303.5% 증가한 3,482톤 기록  
\*핀란드는 유럽 최대의 니켈 생산국으로 최근 주요 배터리 소재 공급망으로 부상, EU CRMA 등 보호무역강화로 핀란드의 가치가 더욱 증가 중
  - (망간) 최대의존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72.9% 증가하며 전년동월 대비 58.3% 증가한 1,505톤 기록
  - (흑연) 중국 흑연 수출통제 우려로 인한 국내 비축량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96.7% 감소한 196톤 기록
  - (리튬) 탄산리튬의 주요 수입국(칠레·아르헨티나·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26.8% 감소한 9,986톤 기록
- (GVC 주요 이슈) 1월 주요 공급망 관련 키워드는 기술, 기업, 산업, 무역 등으로 나타남**
  - (정부) 美 상무부는 IPEF 공급망 협정(필라 II\*)이 일부 국가에서 발효됨을 발표, EU는 탄소국경제도(CBAM)를 본격 개시\*\*  
\*IPEF 필라 II는 공급망 관련 협정으로 참여국은 공동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위기대응 회의를 요청할 수 있음  
\*\*CBAM 대상품목(현재는 시멘트, 철강, 수소 등) 수입자는 수입품목에 대한 제품 총량, 원산지에서 납부된 탄소 비용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함
  - (기업) 獨다임러는 중국 배터리 기업 이브에너지와 합작하여 미국에 LFP 배터리 공장을 구축, SK하이닉스·인텔·NTT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을 발표하는 등 국제협력을 통한 기업의 첨단산업 기술력 확보 추세 강화

핵심광물	흑연	코발트	니켈	리튬	망간	희토류
총 수입 중량 (단위: 톤)	196 (△96.7%)	392 (△18.0%)	3,482 (+303.5%)	9,986 (△26.8%)	1,505 (+58.3%)	823 (△6.7%)
<국가별 수입 비중 (단위: %)>						
벨기에	0.0	10.6	2.0	0.0	0.0	0.0
칠레	0.0	0.0	0.0	18.9	0.0	0.0
중국	72.9	69.1	5.7	76.9	80.8	77.6
독일	8.4	0.0	0.0	0.0	1.3	0.1
핀란드	0.0	15.3	91.6	0.0	0.0	0.0
프랑스	0.0	0.0	0.0	0.0	0.7	5.7
일본	10.4	5.0	0.7	0.0	2.7	3.1
필리핀	0.0	0.0	0.0	0.0	0.0	10.8
대만	0.0	0.0	0.0	0.0	6.6	0.8



자료 : 무역협회, \*핵심광물별 세부 코드: 흑연(HS 250410), 코발트(HS 282200), 니켈(HS 283324), 리튬(HS 282520, 283691), 망간(HS 283699), 희토류(HS 280530, 284610, 284690, 850511)

자료 : 무역협회 소부장산업 공급망센터(<https://www.kita.net/>)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키워드 추출 11